2008년세 우수법인상 수상
새해福 많이 받으십시오
동양저축은행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제1826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9년 1월 17일 (음력 12월 22일) 토요일

행정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낭자!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7(土)	18(日)
맑은 뒤 흐림	흐리고 비
-2/8℃	3/8℃

News

- 李대통령 광주·전남 방문 ②
- 이주여성 가족 돌잔치 ③
- 이봉주 장흥서 훈련 ⑭

Books

-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⑥

Entertainment

- '꽃보다 남자' 이민호 ⑦

- 신인 여배우 맹활약 ⑩

Wellbeing

- '영양 만점 삼색 가래떡' 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호남고속철 앞당겨 완공하겠다"

李대통령 "내가 독촉하면 가능" 2014년 이전 개통 시사

광주시·전남도 업무보고
J프로젝트 관심갖고 적극지원
광주 R&D특구도 긍정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2017년 완공 계획인 호남고속철도 완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혀 2014년 이전 개통을 시사했다. 광주 R&D특구 지정,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 광주·전남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생각은 (호남)고속철도을 가능한 한 빨리 당겨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나의 완공시기 단축의지를 못 좇아 온다. 될 수 있는 한 당기는 것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서남해 프로젝트도 그동안 진척도가 늦었으니 앞으로 구체적 사업계획과 맞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남이 미래 발전을 위해 F1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만 제대로 되면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J프로젝트 건설현장, 나불도 영산강 살리기 현장, 광주의 한국광기술원 등도 차례로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광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광주가 R&D특구나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여건을 갖춘 만큼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의 미래지향적 사업이 많다. 경제적 논리로 잘 이끌어가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따라 올 수 없을 것"이라며 "광주·전남의 의욕적인 사업 추진 등을 높이 평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역발전 토론회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각급 기관 단체장, 시장·군수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광주 한국광기술원을 방문, 홍보관에서 광산업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광태 광주시장, 이명박 대통령, 김국웅 우리로광통신 대표, 유은영 한국광기술원장. 〈광주전남사진기자단〉

한상률 국세청장 사의…'빅4' 금명 인사

한상률 국세청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여권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선에 본격 착수, 후보 명단을 최대 3배수로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청와대가 4대 권력기관장의 임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4대 권력기관장의 인사가 기정사실화 된데다 외부 요인까지 겹쳐 조직 동요와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가 인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 후임으로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허용석 관세청장, 오대식 전 서울지방 국세청장, 김호업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찰청장은 교체 쪽으로 방침이 정해질 경우 김석기 서울청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해남 땅끝마을 브랜드가치 전국최고

해남군 '땅끝마을'이 전국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마을이 됐다. 해남군은 '2009 한국지방자치브랜드대상'에서 땅끝마을이 안동 하회마을과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등과 경쟁해 브랜드 마을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일보 조인스닷컴과 KBSi에서 주최한 이번 브랜드 대상은 온라인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만여건의 유·무형 브랜드 후보군 중 20개 브랜드를 최종 선정됐다. 특히 네티즌 260만명과 전문 패널 집단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지역성 등을 조사한 결과 땅끝마을의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군은 전했다. 땅끝은 해남의 친환경 대표 농산물인 쌀과 김, 고구마 등의 브랜드로 활용돼 주목받고 있으며 국토순례의 시발지로 명성이 높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

"건설·조선사 퇴출 없다"

채권은행단 "12~16개사 구조조정 대상"

채권은행들이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또 구조조정(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곳들도 건설사 10~13개사, 조선사 2~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위험평가 항목 중 '기타항목(5점)'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워크아웃과 퇴출 대상 기업 수를 늘리라고 주문함에 따라 해당 건설사와 조선사 수는 각각 2~3개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출 기업은 1~2개에 불과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들은 92개 건설사와 19개 조선사 등 111개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를 잠정 마무리했다.

건설사의 경우 국민은행 등의 은행들은 신용위험 평가 결과 별 이상이 없다며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가장 많은 업체인 30개 건설사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막판 심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퇴출 대상 업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1~2개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9개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서도 퇴출 대상은 없으며 2~3개 조선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평가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건설사와 중소조선사 중에서 퇴출 대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이 워낙 보수적이고 추후 책임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C등급 이하로 평가한 건설사는 10여개 안팎, 조선사는 2~3개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당초 23일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 다음 주 초중반에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상무지구 M타워 5층

가능성 건강신발 닥터포닥터 신년세일
광주가 낳은 신발이 세계로!~
닥터포닥터(Doctor D)는 광산구의 아들이 개발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가능성 있는 신발입니다.
이제는 성장을 생각할 때입니다. 닥터포닥터(Doctor D)신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50 SALE ~30%
일부품목제외
닥터포닥터 신발의 효과
닥터포닥터
광주유스퀘어점 (T.512~3221)
상무점 (T.381~1153)
봉선점 (T.651~3119)
일신점 (T.522~3330)